

# 무관중·리그 축소·개막전 연기...코로나19에 '휘청'

### WKBL, 무기한 무관중 결정...K리그는 개막 연기

### 시즌 진행중인 핸드볼리그, 리그 축소 및 챔피언 취소

한국 스포츠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1일 국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이날부터 정규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무기한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긴급하게 결정하게 됐다. 이미 표를 예매한 구매회원에게는 수수료 없이 환불할 예정이다.

WKBL 관계자는 "무관중 경기 조치가 끝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변동되는 상황은 수시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KBL의 결정에 앞서 대한민

국농구협회도 국가대표 경기를 관중없이 치르기로 했다. 농구협회는 지난 20일, 2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태국과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전을 무관중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시즌이 한창인 농구계의 타격이 크다. 아시아컵 예선으로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남자 프로농구 역시 26일 리그 재개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기대와 달리 휴식이 동안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오는 25일 10개 구단 단장들과 KBL 총재가 모이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남자농구 역시 무

관중 경기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프로축구 K리그 시즌 개막전도 연기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K리그 대표자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리그 일정을 논의한 뒤 개막전 연기를 결정했다.

K리그 대표자회의 후 한웅수 프로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 지역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남은 일정은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원FC-대구FC전, 다음 달 1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예

대 있던 부산 아이파크-포항 스틸러스전은 뒤로 밀렸다. 연기된 경기를 언제 치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아예 지난해 11월 말 개막해 시즌을 진행 중인 핸드볼코리아리그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21일 밝혔다.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전도 생략한다. 핸드볼코리아리그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지만 핸드볼협회는 안전을 택했다.

남자부는 4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여자부는 3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리그 일정을 단축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전도 생략하기로 했다. 남은 일정은 무관중 경기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폐막하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도 생략되는 것. 이는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폐회식이 열리지 못하면서 통상 있었던 대회 MVP 인터뷰도 생략된다.



프로야구도 코로나19 영향권에 놓였다. 다음 달 14일 시범경기가 개막하는 가운데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다. 정규시즌 개막(3월29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은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별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경계태세를 갖췄다. 한편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부

산 베스코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예정대로 열린다.

스티브 데인튼 국제탁구연맹 CEO는 "현재 부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 때문에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연기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美 야후스포츠, 류현진 '박한 평가'...ML 판타지 랭킹 전체 131위

전문가 3명에게 각각 124위·137위·144위로 뽑혀

미국 현지 매체가 새로운 팀에 동지를 둔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대해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23일(한국 시간) 전문가 3명의 의견을 종합한 2020시즌 메이저리그 판타지 베이스볼 드래프트 랭킹을 발표했다.

판타지 베이스볼은 가상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투타 관계없이 1~300위까지가 공개됐다.

3명에게 각각 124위, 137위, 144위로 뽑힌 류현진은 전체 131위에 이름을 올렸다.

덴 해리스는 "류현진이 건강하다면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라며 "지난해 류현진은 가장 낮은

BABIP(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비율)과 그라운드볼 허용률(0.162)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야닝당 출루허용률(WHIP)이 1.01이었지만 올해 토론토에서 이 수치는 분명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 시즌 성적을 예측하는 2020 프로젝트에 따르면 류현진은 11승, 153삼진, 평균자책점 3.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야후스포츠의 판타지 랭킹 선발 투수 중에선 36위로 예상된 바 있다.

지난해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의 빼어난 성적을 낸 류현진은 2020 시즌을 앞두고 4년 총 8000만달러에 토론토와 FA 계약을 맺었다. 바리크 통산 126경기



에 나와 54승33패, 평균자책점 2.98을 기록 중이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 캠프에서 훈련 중인 류현진은 오는 28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와의 시범경기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판타지 랭킹에서는 로날드 아루나 주니어(애들랜트)가 1위에 뽑혔고, 마이크 트라웃

(LA 에인절스), 크리스티안 엘리치(밀워키), 코디 벨리저(다저스), 프란시스코 린도어(클리블랜드)가 2~5위에 자리했다.

이어 무키 베츠(다저스), 트레이 버스토리(콜로라도), 게릿 콜(양키스), 트레이 터너(워싱턴), 제이콥 디그롬(매츠)이 차례대로 6~10위에 랭크됐다.

## KIA 최형우,美 독립리그

### 연합팀 상대로 '3안타 맹타'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미국 독립리그 연합팀을 상대로 3안타 불발방비를 휘둘렀다.

최형우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데리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미국 독립리그 연합팀을 상대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2루타 2개로 장타력도 과시했다.

KIA는 3회말 최형우의 2루타 등 안타 3개와 볼넷 1개를 묶어 3득점하며 기선을 제압한 뒤 4-2로 승리했다.

KIA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선발 등판했다. 이날 당 한계 투구수를 정해놓고, 15구를 던지면 자동으로 이닝이 끝나는 방식으로 구위를 점검했다.

브룩스는 1회초 선두타자를 내야 땅볼로 잡아낸 뒤 두 번째 타자에게 볼넷을 내줬다. 세 번째 타자를 상대하던 중 15구를 채워 이닝



종료.

2회초에도 마운드에 오른 브룩스는 1루수 직선타, 유격수 땅볼로 투아웃을 잡아낸 뒤 다음 타자에게 이닝 15구째를 던지면서 마운드를 내려갔다.

## '데뷔전 KK'...세인트루이스 감독 "김광현의 슬라이더 효과적"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의 마이크 실트 감독이 첫 실전 등판에서 좋은 공을 던진 김광현(32)을 칭찬했다. 김광현의 별명이자 2개의 삼진을 뽑아낸 'KK' 슬라이더를 향해 엄지를 세웠다.

김광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뉴욕 메츠전에 5회초 등판, 1이닝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인 엠베닷컴에 따르면 실트 감독은 경기 후 "김광현의 피칭이 좋았다"라며 "슬라이더가 효과적이었다. 날카

롭고 움직임이 빠르다"고 칭찬했다.

이날 투구수는 19개였고 스트라이크가 14개였다. 최고 구속은 92.1마일(148.3km)을 기록했다. 직구와 슬라이더 외에 커브와 체인업 등 다양한 공을 구사했다.

경기 후 실트 감독은 'KK'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광현은 성(Kim)과 이름(Kwang-Hyun)에 K가 2개 들어가 현지로부터 'KK'라는 별명을 얻었다. 야구에서 'K'는 삼진을 뜻하기도 한다.

김광현은 이날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앞세워 2개의 삼진을 뽑아냈다. 첫 타자인 라이언 코넬에게 슬

라이더를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1사 1루에서 만난 제이크 헤이거에게도 슬라이더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만들었다.

김광현은 경기 후 첫 투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결과가 좋아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미소 지었다.

엠베닷컴은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최고의 공이었다. 빠른 볼과 함께 그리고 각도 큰 커브볼로 타자들을 상대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광현은 오는 27일 시범경기에 선발로 나와 2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다.

## 정해림, 평창 FIS 스노보드 월드컵 8위

정해림(25·전북스키협회)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2회 연속 8위에 올랐다.

정해림은 지난 22일 휘닉스 평창 스노우파크 이상호 슬로프에서 개최된 2020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평행대회전에서 예선 1,2차 시기 합계 1분28초39를 기록했다. 1위 라모나 호프마이스터(독일)에

6.02초 뒤진 14위로 16강 본선 진출.

정해림은 16강에서 나탈리아 소블레바(러시아)를 꺾고 8강에도 올랐다. 코스 선택권이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거둔 값진 승리였다. 그러나 8강에서는 라디나 제니스(스위스)와 접전을 벌인 끝에 마지막 구간에서 넘어지며 4강 진출은 실



노보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2명

패했다. 장서희(18·고한고등학교)도 예선 1,2차 시기 합계 1분 29초 01로 15위를 기록, 16강에 올랐다. 여자 스

노보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2명이 최하다.

최종 순위에서는 정해림이 8위, 장서희가 15위에 랭크됐다.

대회를 마친 후 정해림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판 실수가 많이 아쉽다"며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훈, 근육맨 오타니에 쓴소리

### "야구는 프로 레슬링 아니다"

일본 야구계의 '빅마우스' 장훈(80)이 근육맨으로 변신한 오타니 쇼헤이(26·LA 에인절스)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23일, 이날 TBS 생방송 '스테이 모닝'에 출연한 장훈의 오타니 관련 코멘트를 보도했다.

장훈은 근육질로 변한 상반신을 드러낸 오타니의 영상을 지켜본 뒤 "안된다 오타니"이라며 "저런 몸을 만들면 안된다. 프로레슬링이 아니다. 야구에 필요한 몸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러 장훈은 "이치로 얘기 좀 해주라"며 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아라이 다카히로(43)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아라이는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평론가다.

그러자 아라이는 "일본의 야구 영웅" 스즈키 이치로(47)가 메이저리그 진출 후 몸을 키웠다가 타격 부진에 빠졌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훈은 "부상을 당한다. 몸이 커지면 무릎에 부담이 생긴다.



특히 인조잔디에서 뛰면 부상이 매우 많아진다"며 "웨이트트레이닝을 해도 그 이상으로 러닝을 해야 한다. 겨우로다. 상반신만 단련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설가'로도 유명한 장훈은 재일교포 2세로 1981년 은퇴하기까지 23년 간 프로에서 활약하며 일본 프로야구 최다인 3085안타를 기록한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이다. 스즈키 이치로가 미일 통산으로 장훈의 기록을 넘어섰지만 일본 기록만 따지면 여전히 장훈이 1위다.